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적극 협조”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한 가족대책위에
재발방지 노력 ‘화답’

조계종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며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자비행을 이어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월2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나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이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비롯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났음에도 여야 정치권은 정치공세를 벌이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에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불교계가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단은 그동안 진도 팽목항과 안산에서 실종자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성역 없는 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하며 배석한 총무국장 명본스님에게 종단 차원에서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서명운동과 기도로 유족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5월27일 가족대책위 소속 유가족 130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방문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 국정조사 특위 개최가 지시부진한 데 대해 질타하고 즉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날 총무원 예방을 시작으로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계 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가칭) 제정’과 조속한 실종자 구조를 위한 1000만 대국민 서명운동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을 비롯해 김병권 대책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전명선 부위원장, 이수하 부대변인, 박래균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주민 변호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허정철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월2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를 만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주 기자

세월호 희생자 피해지원 ‘한마음’

군종교구 준군법사 ‘모연’
화계사 천도재 통해 모금
안성사암도 실시일반 성금



정우스님 군종교구장, 수암스님 화계사 주지, 안성사암연합회장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나눔이 이어졌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은 지난 5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세월호 희생자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 군법당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분향소와 헌수막을 설치하고 실시일반으로 모

금한 기금이다. 특히 군종특별교구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탐색 및 구조작전에 참가 중인 군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임무수행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격려활동과 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이번 기금은 전군 군법사들이 사재를 털어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모연을 이뤄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살림살이가 어려운 군종교구에서 실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줘 더욱

뜻 깊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과 신도들도 5월26일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암스님은 “4월 초 하루법회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생자들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고 모금을 실시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실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기금을 신도회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행에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강스님)도 5월26일 성금 453만3160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박인택 엮태규 기자

“집집마다 걸 수 있는 연등 만들자”

임돈희 동국대 교수
불교포럼서 강연



한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지정으로 된 불교무형문화재는

“우리의 꿈은 세계인들이 감탄할 만한 멋진 연등이 만들어져 미국 뉴욕타임즈 스퀘어에 전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찰의 전설과 민담을 수집해 스토리텔링해 제2의 <삼국유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영산재가 유일했다가 연등회와 수록재가 추가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불교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임 교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는 연등회의 가치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연등회야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가의 대표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라며 “연등회의 꽃이라고 할 연등은 우리가 세계화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수년 전부터 동국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작연등’ 공모전을 열어 연등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임 교수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선정 국제심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유네스코 아태무형센터 부이사장 및 자원위원장, 대한민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및 무형문화유산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지난 4월16일 서울 국립극장 KBホール극장에서 개최한 봉축 불교음악 연주회 ‘박범훈의 목소리 찬불가’ 공연 수익금 13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추진 중인 농업고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중무원 불교활동가 종교문화체험 진행

종단협, 3박4일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오는 6월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동안 불교 주요 종단과 이웃종교 시설을 잇따라 탐방하는 ‘한국종교문화체험사업’을 진행한다. 종단협의회 회원 중

단과 사찰 중무원, 불교단체 활동가 40명을 모집해 진행하는 이번 한국종교문화체험사업은 주요 불교종단과 이웃종교 성지를 탐방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노후유를 배울 뿐만 아니라 종교간 화합 도모, 불자로서의 신심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종교문화체험은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진각종 진각문화진흥관, 천태종 관문사, 정토회, 제4교구본사 월정사, 양양 낙산사, 동해 삼학사 등 불교 주요 종단 시설을 찾아 활동 현황과 종단별 특성,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살펴며 각 종단과 사찰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불자의 삶, 포교사의 삶’과 ‘레크리에이션 기법 배우기’ ‘이웃종교인과의 만남’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신심을 북돋우고 자기개발도 갖는다.

이와 함께 가톨릭 명동성당과 성공회 서울대성당, 이슬람사원, 원불교 은덕문화원, 삼척 해신당공원 등지를 찾아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종교간 화합도 도모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출가특별법, 문제는 예산



어현정 기자의
현장에서

eonaldo@ibulgyo.com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학지원 안내서를 해당 행자들에게 발송했다.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출가자와 만19세 이상 만30세 이하의 청년출가자들이 그 대상이다.

2013년 6월 제정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출가자 급감과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젊고 유능한 출가자를 영입하기 위한 종단의 자구책으로 장학지원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소년출가자에 한해 행자교육이 면제되며, 수계받기 전까지 주지 스

님의 재량 하에 학교기숙사나 별도 거주처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또 소년, 청년출가자가 중·고등학교,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 시 등록금과 수업료를 종단이 지원한다. 구족계 수지 후 대학원 진학 시에도 장학혜택이 주어진다. 출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하겠다.

문제는 비용이다. 출가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됐지만, 관련 예산은 올해 기초조사비 1000만원 가량이 책정된 게 전부다.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은사 스님이 장학지원과 생활을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하는 스님들

에 대한 지원책이 명확치 않다. 처음 한 두 해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지만, 중앙승가대나 동국대 불교대학 및 대학원까지 다수의 스님이 진학하면 적지 않은 학비가 종단에 부담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마련책은 아직 없다.

출가특별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재정확보가 병행돼야 한다. 승가고육진흥기금 등 비정기적인 후원금에 의존하기보다 재정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안을 세우고,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출가특별법이 공염불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교원 2급 온라인 수강생 모집

“정년이 없는 유망 직종 한국어교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100% 온라인 수업”

■ 학위취득과정(학점은행제)

내 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한국어교원2급)
운영교과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외국어습득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 교육심리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개론, 교육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현대한국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자격요건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또는 복수전공 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48학점 이수 후 ‘타 전공 학사학위’ 받은 후 자격 취득 가능 · 한국어 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5년 동안 2,000시간 이상 강의 경력 인정 시 승급 신청 가능
교양호환과목	경영학개론, 인간관계론,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

■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교기관 등

■ 등록 안내

접수기간 : 2014년 3월~4월까지
1:1 개별 상담 후 등록

■ 에이스에듀평생교육원의 장점

- 100% 자체 제작의 수준 높은 강의 콘텐츠
-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강의
- 일반대학 및 사이버대학 대비 저렴한 수업료
- 회원관리수수로 및 입학금 면제
- 조기 등록 시 20~30% 할인 혜택 적용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회복지’입니다.
자격증은 필요할 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1주일에 6시간이면 됩니다. 인터넷 교육 방법과 내용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는 수강 후 전원 자격증이 부여되지만, 수년내 수강 후 시험을 치루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입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

2012년과 2013년 2년여 동안 분야카데미를 통하여 8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사회복지사 2급과 보육교사2급을 취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학습을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구분내용
고등학교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복수과정 3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학사 취득
전문대 이상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14과목 이수 후 자격 취득 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1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타전공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복수과정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타전공전문학사 취득

(사)대한불교청년회 부



불교사회아카데미
Buddhism Society Academy

문의
02)738-9117

문의
전화
1600-3882

http://www.aceedu.kr
천호역 3번 출구 7번 거리 주민센터건물 4층
3번 출구 앞 3318 · 3411 · 340번 버스
천구병원 정류장 하차 1분 거리